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상성의 영향: 동형동의어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hinese Falling-rising Tone on the Pitch of Sino-Korean Words
Pronounced by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Same-form-same-meaning Words

김영주¹⁾ · 유사양²⁾

Kim, Youngjoo · Liu, Si 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fluence of Chinese falling-rising tone on the pitch pattern of corresponding Sino-Korean words delivered by Chinese learners of Korean and to examine how the falling-rising tone of corresponding Chinese words affect the pitch patterns of Sino-Korean word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to Chinese learners of Korean, especially when they pronounce same-form-same-meaning Sino-Korean words. In this study, Chinese learners pronounced both Chinese words and corresponding Sino-Korean words. Learners' pitch patterns were recorded and analyzed using software and compared with the tone of corresponding Chinese word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ino-Korean words were affected by Chinese 'falling-rising tone - high and level tone' when they started with lenis sounds. On the other hand, when Sino-Korean words started with aspirated sounds they were affected by Chinese 'falling-rising tone - high and level tone', 'falling-rising tone - falling-rising tone', and 'falling-rising tone - falling tone'. In conclusion, the Chinese learners' pitch patterns of Sino-Korean words are affected by Chinese falling-rising tone, especially when Sino-Korean words start with aspirated sounds.

Keywords: pitch pattern, pitch error, Chinese learners of Korean, Chinese tone, Korean pitch pattern, interference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중국어 상성(上聲)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양상을 보는 데 있다. 한국어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로 인해 한국어 단어 학습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유리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물론 문맥 내의 의미 파악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용이하겠으나 음성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류를 더 범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한국

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 오대(五代)~ 북송(北宋; 907 A.D.~1127 A.D.)³⁾때 중국에서 유입되었고 현대 중국어 단어와 사용 특히 발음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음운체계를 가진다. 한국어에서 성조는 변별적 요소가 되지 못 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단어마다 고유한 성조가 있고 그 성조가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중국어의 성조를 완전히 버리고 한국어의 발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 힘들다. 이로 인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발화할 때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받아 어색한 음높이 유형을 양산하는 발음 오류를 범한다. 특히 중국어 단어와 유사한 한국어 한자어는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발

1) 경희대학교, yjkims@khu.ac.kr

2) 경희대학교, yosayoung@hanmail.net

접수일자: 2011년 1월 30일

수정일자: 2011년 5월 10일

게재결정: 2011년 6월 7일

3) 増田 弘, 大野敏明 (2006), 《古今各国[汉字音]对照辞典》, 株式会社东京慧文社, P12 <各汉字の分枝年代>

음 연구는 주로 자, 모음별 발음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들로 음 높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장향실(2002)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보이는 오류는 중국어의 성조 때문으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할 때 성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통해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한국어의 2음절 이상의 단어나 문장을 발음하라고 하면, 학습자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성조나 강세를 넣어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시하였다.

또 정명숙(2003)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음높이 유형은 자신의 모국어가 갖고 있는 음높이의 유형적 요소, 즉 단어 강세, 성조, 강세구의 음높이 유형, 문미 음높이 유형의 특징 등에 모두 간섭을 받는다고 하였다. 중국인의 경우 중국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성조에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발화할 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높이 유형으로 실현하며 단어의 성조의 간섭 현상은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중국어 성조가 한국어 발음에 영향이 있다는 것만 제시하였을 뿐 이러한 영향에 대한 원인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 외의 음높이 유형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문장 전체의 음높이 유형이나 개별 분절음에 초점을 둔 것들로 중국어 한자 성조 체계의 간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기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외국인 화자의 발음의 정확성과 초분절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고 이 또한 전체 발화나 문장 어미의 음높이 유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기영, 2009; 이옥주, 2008; 박혜영, 1999).

그러나 눈을 돌려 중국인 학습자의 영어 발음 습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국어의 상성이 영어의 발음 즉 음높이 형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王皓·李延林 2003). 그래서 본 연구는 王皓과 李延林(2003)에 기대어 중국어 상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음성학적 실험을 통해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중국어 상성(上聲)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음할 때 음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양상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어 한자어의 범위가 워낙 넓고 그 분류 또한 복잡하여(남명애·김영주, 2008) 본고에서는 같은 한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같은 동형동의 한자어에 국한하여 실험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어 기본 성조 체계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조가 있는 것이다. 성조는 말소리의 높이가 단어 의미의 변별 기능을 수행하며, 음운론의 층위에서 낱말의 각 음절에 자질로서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중국어의 성조는 굴곡조 성조 (contour tone) 분류에 속한다.

현대 중국어(普通話⁴⁾: standard mandarin) 성조 체계는 음평

(陰平, high and level tone), 양평(陽平, rising tone), 상성(上聲, falling-rising tone), 거성(去聲, falling tone) 네 가지 성조로 구성된다. 중국어 단모음인 [i]를 이용하여 중국어의 네 가지 성조와 결합하여 현대 중국어 성조 체계에 따른 중국어 발음을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⁵⁾을 통해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a. 음평(陰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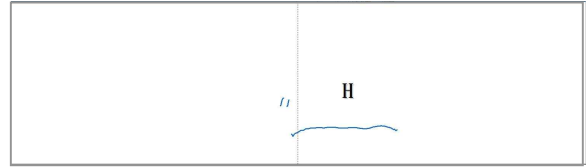


그림 1. [i55]⁶⁾ - i 음평 음높이 유형

음평은 가장 높은 음에서 같은 높이로 지속되는 것으로 소리가 길고 높으며 힘을 빼지 않고 높이를 유지한다. <그림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i55] 발음의 음높이는 185Hz 상하에 유지되고 끝까지 H의 곡선을 나타낸다.

b. 양평(陽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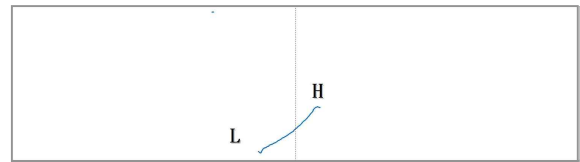


그림 2. [i35] - i 양평 음높이 유형

양평은 저음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성조로 고음까지 단숨에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다. <그림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i35] 발음의 음높이는 최초의 96.2Hz에서 226Hz까지 올라가는 LH의 곡선을 나타낸다.

c. 상성(上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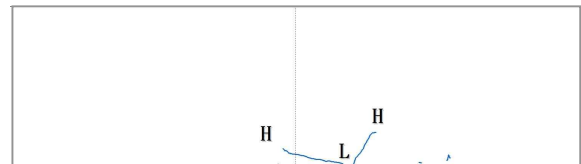


그림 3. [i214] - i 상성 음높이 유형

상성은 중국어 성조 중 가장 특수하고 복잡한 성조로 중음에

4) 普通話 Standard Mandarin: 즉 표준 중국어

5) 피험자: 중국 북경 출신, 남, 25세.

분석 프로그램: Praat Ver 5.1.3.1

6) IPA(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에 따른 중국어 4가지 성조의 음성기호는 음평:[55], 양평[35], 상성[214], 거성[51]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표시법에 따른다.

서 저음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반고음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그림 3>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i214] 발음의 음높이는 최초의 120.5Hz에서 75.92Hz로 내려가다가 다시 171.9Hz까지 올라가는 HLH 곡선을 나타낸다.

d. 거성(去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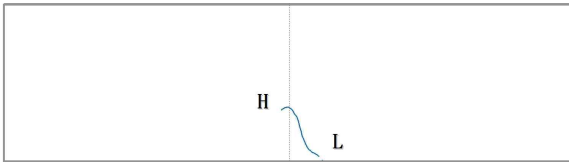


그림 4. [i51] - I 거성 음높이 유형

거성은 고음에서 저음으로 급강하하는 성조이다. <그림 4>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i51] 발음의 음높이는 최초 206Hz에서 급히 92.5Hz로 내려가는 HL곡선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음평, 양평, 거성은 발성할 때 음높이 변화가 없거나(음평 H), 한 가지 음높이 변화가 있었던(양평 LH, 거성 HL) 반면에 상성은 두 번의 음높이 변화를 겪고(HLH) 발음이 완성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중국어 성조 중 상성은 보다 특수한 성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상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어 단어를 선택할 때 상성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는 상성 앞에 다른 성조가 있는 경우에 상성과 결합하여 음높이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발음의 유사성 정도를 통제하여 실험 연구의 엄밀성을 더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 (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 화할 때 중국어 상성이 한자어 음높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영향을 미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가?

3. 실험 방법

3.1 실험 대상

실험 대상자(7)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한 지 1년 정도의 중급 단계의 중국인 유학생으로 남녀 각 20명씩으로 연구대상이 구성되었다. 나이는 20세~24세의 학생들로 출신 지역은 북경, 하남, 허북, 요녕, 길림, 흑룡강, 산서, 산둥, 섬서, 강소, 복건 등으로 다양하였다⁸⁾. 한국인 표본을 위해 서울출신 남

녀 1명씩을 미리 녹음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자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대상.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중국인 화자	남1	24	북경		여1	23	북경
	남2	22	북경		여2	20	북경
	남3	21	북경		여3	24	산서
	남4	20	북경		여4	21	산서
	남5	21	하남		여5	24	허북
	남6	20	하남		여6	22	허북
	남7	23	허북		여7	22	허북
	남8	22	허북		여8	22	섬서
	남9	24	산서		여9	21	섬서
	남10	21	산서		여10	22	강소
	남11	21	산서		여11	22	강소
	남12	21	산서		여12	21	산둥
	남13	23	산둥		여13	22	산둥
	남14	22	산둥		여14	24	흑룡강
	남15	22	산둥		여15	23	흑룡강
	남16	24	흑룡강		여16	23	길림
	남17	22	길림		여17	22	요녕
	남18	22	길림		여18	22	요녕
	남19	24	요녕		여19	20	복건
	남20	20	요녕		여20	20	복건
한국	남	27	서울	여	25	서울	

3.2 실험 예문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 첫 번째 음절이 상성으로 시작되는 중국어 단어와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총 8쌍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용 단어들 간 유사도를 통제하였는데 먼저는 한국어와 달리 종성에 ‘ㄹ, ㄷ, ㄱ, ㄴ’ 등의 자음이 올 수 없는 중국어의 특징에 따라 실험 단어들을 선정할 때 종성이 없거나 ‘ㄴ, ㅇ’과 같은 비음이 오는 단어들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실험에서 쓰인 8쌍의 단어들 간 음절구조와 구성을 IPA를 통해 서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유사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IPA로 표시된 발음을 보면 8쌍의 단어들은 전부 ‘자음+모음(+비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8쌍의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한자어 사이에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높은 유사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8쌍의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한자어 사이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보인다. 첫째는 중국어 자음 중 권설음인 [ts], [s]는 대응되는 한국어 발음에서 권설화되지 않은 [c], [s]로 발음된다는 것이다(主觀-주관, 整形-정형, 保守-보수, 整頓-정돈). 둘째는 [t]와 [d], [k]와 [g], 그리고 [p]와 [b] 등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의 전환이 보인다는 것이다(主觀-주관, 保守-보수, 飽滿-포만, 整頓-정돈, 表現-표현).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언어 간의 차이로 볼 수 있고 연구

7) 실험 대상자는 학문목적 학습자로 중국에서 이미 고등학교까지의 정규 교육을 받은 학습자로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 쓰인 8쌍의 단어들 사이는 보편적인 차이기 때문에 8쌍의 단어들 간의 유사도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상성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단어의 선정 기준으로 상성-음평, 상성-양평, 상성-상성, 상성-거성 네 가지 발음 조합을 선정하여⁹⁾ 이러한 발음 조합에 따라 각각 중국어 단어 두 개씩 그리고 중국어 단어와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어 중 문장 첫 번째 음절이 평음과 격음인 단어 각 한 개씩을 선택하였다. 첫 음절이 경음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한자어(예: 객연)에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평음과 격음 위주로 다음 <표 2>와 같이 단어 목록을 구성하였다.

녹음은 SAMSUNG사의 YP-VX¹⁰⁾ 녹음기와 YP-VP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Praat Ver. 5.1.3.1 을 사용하였다.

표 2. 중국어 상성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단어

중국어 단어	성조	대응 한자어	평음/격음
主觀 [tʂu214,kwan55]	상성-음평	주관 [cu, gwan]	평음
海邊 [hai214,bian55]		해변 [he, bjən]	격음
整形 [tʂəŋ214,ciŋ35]	상성-양평	정형 [cəŋ, hjəŋ]	평음
請援 [tɕ'iŋ214,yən35]		청원 [cʰəŋ, wən]	격음
保守 [bau214,s'ou214]	상성-상성	보수 [po, su]	평음
飽滿 [bau214man214]		포만 [pʰo, man]	격음
整頓 [tʂəŋ214,tun51]	상성-거성	정돈 [cəŋ, don]	평음
表現 [biəu214,ciəŋ51]		표현 [pʰjə, hjən]	격음

3.3 실험 방법

녹음은 K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의실에서 실시하였고 연구자와 학생이 1:1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실험용 문장은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였는데 중국어는 ‘○○也 很常見’을 한국어 문장은 ‘○○도 많이 보인다’를 사용하였고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였다. 실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될 자료를 미리 주거나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

실험 대상자인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인과 같은 녹음 방식으

9) 중국어 성조 체계에 따르면 하나의 성조가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할 때 자신의 성조를 포함한 네 가지 성조와 결합할 수 있다.

10) SAMSUNG YP-VX은 NR(Noise Reduction) 기술로 녹음 장소의 주위 소음을 감소시키며 녹음 파일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로 진행했으나 문장을 읽으면서 머뭇거리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녹음시간은 한국인보다 30초 정도 더 소비되었다.

녹음된 wave 파일은 총 2592개이다. 실험 대상자 한 사람의 발화를 두 번 녹음하여 측정된 부분의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 곡선을 관찰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모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4.1.1 중국인의 모국어 단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상성이 어두에 위치하는 중국어 단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분석 결과를 보면 개개인의 발음 방식, 목소리(tone)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의 음높이 수치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화자들의 상성의 발음 양상은 거의 비슷한 곡선으로 나타났고 중국어 성조 체계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 <그림 8>은 상성과 결합된 각 어휘의 성조를 보여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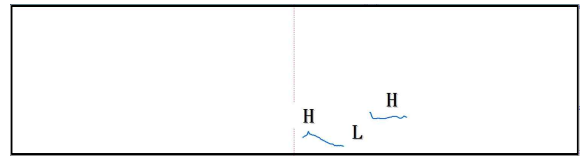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단어 ‘主觀(주관)’의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

위 <그림 5>는 중국인 화자들이 중국어 상성-음평 조합을 발음할 때 보이는 HLHm¹²⁾의 음높이 곡선을 나타낸다.¹³⁾ 중국어의 상성 발음은 후행 글자 발음의 영향을 받아 상성의 변이음이 출현된다¹⁴⁾. 따라서 상성-음평 조합 음높이 유형은 HLHHm이 아닌 HLHm으로 보인다.

11) 여기서 상성과 결합된 네 가지 중국어 성조 조합에 따라 분석된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도를 각각 한 개씩 대표로 기술하였다. 즉 主觀(상성-음평), 整形(상성-양평) 保守(상성-상성), 整頓(상성-거성)이다. 여기서 중국인 남1의 음높이 유형 분석 곡선을 사용하였다.

12) ‘m’은 한 가지 음가를 유지하여 발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중국어는 글자마다 고유한 발음과 성조가 있어 발음될 때 글자와 글자 사이에 활음(滑音) 및 연음(連音)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14) 상성의 변이음의 출현조건:

- a. 상성+상성: 이때 첫 번째 상성의 성조는 [214]에서 [35] (양평)로 바뀐다. (예: 美[mei35]好[xau214])
- b. 상성+경성(輕聲): 이때 첫 번째 상성의 성조는 [214]에서 [21](반상성)로 바뀐다. (예: 嫂[sau21]子[z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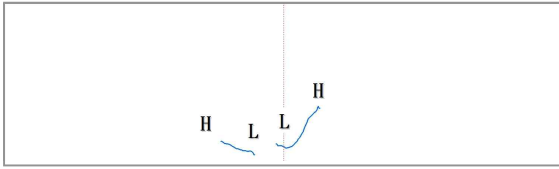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단어 ‘整形(정형)’의 음높이 유형(pitch pattern).

<그림 6>에서 보듯이 중국인 화자들이 중국어 상성-양평 조합을 발화한 음높이 유형 곡선은 HLLH 형식으로 나타난다. 위 상성-음평 조합과 같이 상성-양평 조합의 상성도 양평의 발음의 영향을 받아 HLHLH가 아닌 HLLH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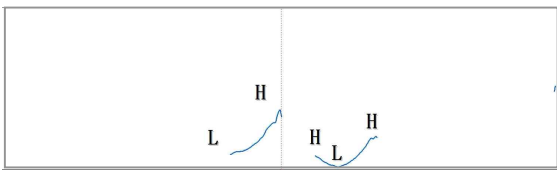


그림 7.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단어 ‘保守(보수)’의 음높이 유형

<그림 7>을 보면 중국어 성조 체계의 예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어 성조 중 상성과 상성이 결합하게 되면 앞에 있는 상성은 양평으로 변화하는 발음 규칙이 있다.¹⁵⁾ 이에 따라 <그림 7>의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성-상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LHHLH 곡선을 나타내지 않고 LHHLH의 형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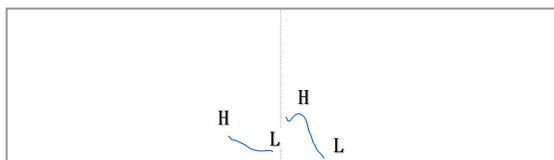


그림 8.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중국어 단어 ‘整頓(정돈)’의 음높이 유형

<그림 8>은 중국어 상성-거성 조합의 음높이 유형이 앞에서 언급한 중국어 성조 체계의 규칙에 맞게 HLHL의 음높이 유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어 상성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主觀(주관; 상성-음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LHm, 整形(정형; 상성-양평)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LLH, 保守(보수; 상성-상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LHHLH, 整頓(정돈; 상성-거성)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HLHL이다.

4.1.2 한국인의 모국어 단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으나 한국어 평음과 격음의 음높이 유형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분석할 때는 평음과 격음으로 나누어 실험 결과를 기술하겠다.

우선 <그림 9> ~ <그림 12>를 통해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평음의 음높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 남녀 두 명이 발음할 때 소리 높낮이의 차이만 나타나고 곡선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서 남성 화자가 발음한 내용의 녹음 분석 결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주관’의 음높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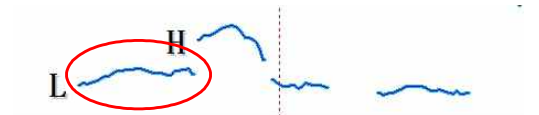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정형’의 음높이 유형



그림 11.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보수’의 음높이 유형



그림 12.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정돈’의 음높이 유형

위 <그림 9> ~ <그림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들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동일한 LH 음높이 유형으로 발화하였다.

그러나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할 때는 평음과 다른 음높이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13> ~ <그림 16>을 통해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격음의 음높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평음과 같이 여기에서도 남성 화자가 발음한 내용의 녹음 분석 결과로 살펴보겠다.

15) 黃伯榮, 廖序東(2007)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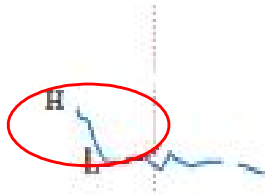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해변'의 음높이 유형



그림 14.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청원'의 음높이 유형



그림 15.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포만'의 음높이 유형



그림 16. 한국인 화자가 발음한 '표현'의 음높이 유형

위 <그림 13> ~ <그림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들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격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발음할 때 동일한 HL 음높이 유형으로 발음하였다.

지금까지 중·한 양국 화자들의 모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중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은 중국어 성조 체계에 따라 발음되어 고정되며 문법이나 발화 환경 등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 단어들은 고정된 음높이 유형이 없고 문장 안에서 음높이 유형이 발화자의 의도, 발화 습관에 따라 다소 변하게 되지만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평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주로 LH로 나오고 격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주로 HL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선아(2000)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중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의 분석 결과를 중·한 양국 화자들의 모국어 음높이 유형의 양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검토하

고 분석 결과는 평음과 격음으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4.2.1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및 논의
한국인의 발화 음높이 유형과 달리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은 화자의 한국어 발음 수준¹⁶⁾과 발음 방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서로 차이를 보였다. 단어 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비교하겠다.

1)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한 한국어 한자어 '주관'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주관'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¹⁷⁾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LH	여1	LH
남2	HLH	여2	HLH
남3	HLH	여3	HLH
남4	LH	여4	HLH
남5	HLHH ¹⁸⁾	여5	LH
남6	HLH	여6	LH
남7	HLH	여7	LH
남8	HLH	여8	HLH
남9	LH	여9	HLH
남10	HLH	여10	HLH
남11	LH	여11	HLH
남12	HLH	여12	HLH
남13	HLH	여13	LH
남14	LH	여14	HLHL
남15	HLH	여15	HLH
남16	HLHL	여16	LH
남17	HLH	여17	HLH
남18	LH	여18	LH
남19	HLH	여19	HLH
남20	HLH	여20	LH

16) 실험 대상을 선정했을 때 같은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를 택했지만 실험할 때 개인의 노력도와 개인의 발음 능력 등으로 인해 한국어 음높이 유형의 정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7)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화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다소 머뭇거리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현상은 주로 단어와 단어 간에 나타났고 단어 음절 말에 위치하는 음의 길이를 연장시킨 것으로 음높이 유형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18) 중국인 남5 실험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보다 발화에 단어마다 음절 말에 음을 길게 늘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발화자의 발화 습관으로 보고 음높이 유형에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결과를 분석할 때 음높이 유형만 연구하고 연장된 음은 연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주관’의 음높이 유형을 평균으로 정리하면¹⁹⁾ 대체로 ‘HLH’로 실현되었다. 앞서 기술한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주관’의 음높이 유형은 ‘LH’로서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주관’의 음높이 유형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다시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主觀(주관, 상성-음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HLHm’와 비교하면 중국인 화자가 한국어 ‘주관’을 발화할 때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어 상성-음평 발음 조합은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정형’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정형’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LH	여1	LH
남2	LH	여2	Hm
남3	HLH	여3	LH
남4	LH	여4	HL
남5	LHH	여5	LH
남6	LH	여6	LHL
남7	HL	여7	LH
남8	LH	여8	LH
남9	LH	여9	LH
남10	LH	여10	LH
남11	LHH	여11	LH
남12	LHL	여12	LHH
남13	LH	여13	LH
남14	LH	여14	LH
남15	LH	여15	LH
남16	LH	여16	LH
남17	LH	여17	LHH
남18	LH	여18	LH
남19	LHH	여19	HL
남20	LH	여20	LH

‘정형’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인 화자들

¹⁹⁾ 중국인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의 억양 분석결과와의 정리 기준은 우선 개별로 음높이 유형을 관찰하고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표 3>처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곡선 유형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집단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이 발음의 대표 음높이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정형’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LH’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정형’의 음높이 유형은 ‘LH’로서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정형’의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였다. 또 위에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整形(정형, 상성-양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는 ‘HLLH’로 중국인 화자가 한국어 한자어 ‘정형’을 발화할 때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즉 중국어 상성-양평 발음 조합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고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보수’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보수’의 음높이 유형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LH	여1	LH
남2	LH	여2	HLH
남3	LH	여3	LH
남4	LH	여4	LH
남5	LHH	여5	LH
남6	LH	여6	LH
남7	HLH	여7	LH
남8	LH	여8	LH
남9	LH	여9	LH
남10	LH	여10	LH
남11	LHm	여11	LH
남12	HL	여12	HL
남13	LH	여13	LH
남14	LH	여14	LH
남15	LH	여15	LH
남16	LH	여16	LHL
남17	LH	여17	LHH
남18	LHH	여18	LH
남19	LH	여19	HL
남20	LH	여20	LH

‘보수’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보수’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LH’로 실현되었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보수’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매우 비슷하였다.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保守(보수, 상성-상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LHHLH’와 비교해 보면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정돈’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정돈’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LHL	여1	LH
남2	LH	여2	LH
남3	LH	여3	HLH
남4	LH	여4	LH
남5	LHH	여5	LH
남6	LH	여6	LH
남7	HL	여7	LH
남8	LH	여8	LH
남9	LH	여9	LH
남10	LH	여10	LH
남11	LH	여11	LH
남12	HLH	여12	LH
남13	LH	여13	LH
남14	LH	여14	LH
남15	LH	여15	HL
남16	LH	여16	LH
남17	LH	여17	LH
남18	LH	여18	LHH
남19	LH	여19	HL
남20	LH	여20	LH

‘정돈’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정돈’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LH’로 실현되었다. 이는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정돈’의 음높이 유형인 ‘LH’와 매우 비슷한 결과이다. 이를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整頓(정돈; 상성-거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HLHL’와 비교해보면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 상성-거성 발음 조합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덜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평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자의 한국어 습득 수준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한자어 ‘정형’, ‘보수’, ‘정돈’의 음높이 유형은 ‘LH’로 한국인 화자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주관’의 음높이 유형은 한국인의 음높이 유형과 다르게 ‘HLH’ 양상으로 중국어 ‘主觀(주관)’의 음높이 유형 ‘HLHm’과

유사하여 중국어 ‘主觀(주관)’(상성-음평 발음 조합)의 성조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어 상성은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발음에서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가 상성-음평 조합의 경우에만 간섭이 일어났고 나머지 세 가지 성조 조합에서는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4.2.2 격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겠다.

1)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해변’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해변’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HLHL	여1	HL
남2	HL	여2	HLHL
남3	HLH	여3	HL
남4	HLH	여4	HLH
남5	HHL	여5	HLH
남6	HLHm	여6	HL
남7	HLH	여7	HLH
남8	HLH	여8	HL
남9	LH	여9	HLH
남10	HLH	여10	HLH
남11	LH	여11	HL
남12	HLH	여12	HLH
남13	HL	여13	HL
남14	HLH	여14	HLH
남15	HLH	여15	HLH
남16	HLH	여16	HLH
남17	HL	여17	HL
남18	HLH	여18	HL
남19	HL	여19	HLH
남20	HLH	여20	HL

‘해변’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해변’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HLH’로 실현되었다.²⁰⁾ 중국인 화자

20) 중국인 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음높이 유형 양상이 나왔지

가 발음한 ‘해변’의 음높이 유형 곡선은 처음에 한국인과 비슷하게 ‘HL’로 나왔지만 한국인 ‘HL’로 끝나는 것과 달리 중국인의 발음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특징, 즉 중국어 상성 발음의 특징인 ‘HLH’의 음높이 유형 양상이 나왔다. 이에 중국어 상성-음평 발음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청원’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청원’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HL	여1	HLH
남2	HLH	여2	HL
남3	HL	여3	HHL
남4	HL	여4	HL
남5	HLL	여5	HL
남6	HLH	여6	HLH
남7	HL	여7	HL
남8	HL	여8	HLH
남9	HLH	여9	HL
남10	HL	여10	HL
남11	HL	여11	HLH
남12	HL	여12	HL
남13	HL	여13	HL
남14	HLH	여14	HLH
남15	HLH	여15	HL
남16	HL	여16	HLH
남17	HLH	여17	HL
남18	HL	여18	HL
남19	HL	여19	HLH
남20	HL	여20	HL

<표 8>을 보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청원’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HL’로 실현되었다.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청원’의 음높이 유형은 ‘HL’로서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請援(청원; 상성-양평)’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HLLH’와 유사하여 중국인 화자가 한국어 ‘청원’을 발화할 때 중국어 성조의 간섭을 적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포만’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포만’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HL	여1	LH
남2	LHH	여2	LH
남3	LH	여3	HL
남4	HL	여4	LH
남5	LHH	여5	HL
남6	LH	여6	LHH
남7	LH	여7	HL
남8	LH	여8	LH
남9	LH	여9	LH
남10	LH	여10	LH
남11	LH	여11	LH
남12	LH	여12	LH
남13	LH	여13	HLH
남14	HLL	여14	LH
남15	LH	여15	LH
남16	LH	여16	LHH
남17	LH	여17	LH
남18	LH	여18	LHH
남19	HL	여19	LHH
남20	LH	여20	LHH

<표 9>를 보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포만’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LH’로 실현되었다. 이를 한국인이 발음한 ‘포만’의 음높이 유형인 ‘HL’과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중국어 ‘飽滿(포만; 상성-상성)’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인 ‘LHHLH’와 비교해 보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LH’ 음높이 유형은 중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한국어 단어 ‘포만’의 음높이 유형과 유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중국어 상성-상성 발음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에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4)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표현’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주로 대상 단어가 뒤에 문장 성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대상 단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만을 참고하였다.

표 10.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표현’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성별	음높이 유형 곡선 분석결과
남1	HL	여1	HL
남2	HL	여2	HLHL
남3	HLHL	여3	HLH
남4	HLHH	여4	HLHL
남5	HLHLL	여5	HL
남6	HL	여6	HLHL
남7	HLHL	여7	HL
남8	HLH	여8	HL
남9	HLH	여9	HL
남10	HLHL	여10	HLH
남11	HLHL	여11	HLHL
남12	HLHL	여12	HLHL
남13	HLHL	여13	HLHL
남14	HLH	여14	HLHL
남15	HLL	여15	HLHL
남16	HLHL	여16	HL
남17	HLL	여17	HLHL
남18	HLHL	여18	HLH
남19	HLHL	여19	HLHL
남20	HLHL	여20	HLHL

<표 10>에서 보듯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 ‘표현’의 음높이 유형은 대체로 ‘HLHL’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중국어 상성과 비슷한 음높이 유형 양상이 보이는데 한국인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표현’을 발음한 음높이 유형은 ‘HL’인 것과 달리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표현’은 중국어 ‘표현(表現; 상성-거성)’의 성조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 음높이 유형과 비슷한 음높이 유형 양상이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어 상성-거성 발음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 보았고 양국 화자의 모국어 발음과 비교해 보았다.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습득 수준과 발음 능력 등 개인의 차이를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청원’의 음높이 유형은 ‘HL’로 한국인 화자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해변’과 ‘표현’을 발화할 때 음높이 유형 양상은 ‘HLH’로 나왔는데 이런 음높이 유형 양상은 중국어 상성의 음높이 유형(HLH)과 유사한 것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중국어 상성-음평 발음 조합과 상성-거성 발음 조합은 격음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간섭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포만’의 음높이 유형

양상은 중국어 ‘포만’의 음높이 유형 양상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앞에 4.1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상성-상성 성조 조합의 실제 발음은 양평-상성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상성이 아니고 양평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성조 특히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상성의 영향 즉 간섭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한자어를 발화할 때 쉽게 범하는 음높이 유형 오류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음성학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에 본 연구가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동형동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음성학적 측면에서 실험을 통해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중국어 상성이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를 발화할 때 음높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기본 성조 체계의 기술을 통해 현대 중국어의 음평(陰平; high and level tone), 양평(陽平; rising tone), 상성(上聲; falling-rising tone), 거성(去聲; falling tone) 네 가지 성조의 발음 방식과 특징 그리고 음높이를 음높이 유형을 통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실험의 대상, 도구, 방법, 녹음자료 및 녹음환경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중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중국어 상성의 네 가지 발음 조합(즉 상성-음평, 상성-양평, 상성-상성, 상성-거성)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살펴보았고 또 한국인 화자들이 발음한 중국어 단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한자어를 문장 첫 번째 음절이 평음인 경우와 문장 첫 번째 음절이 격음인 경우로 나누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한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다시 각각 중국인이 발음한 중국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과 한국인이 발음한 대응하는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 양상과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중국어 상성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한자어를 발화할 때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고 양상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가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 상성-음평 발음 조합만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세 가지 조합 즉 상성-양평,

상성-상성, 상성-양평 발음 조합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격음으로 시작되는 한자어가 문장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경우에는 상성-양평 발음 조합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세 가지 조합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성-음평 발음 조합과 상성-거성 발음 조합에서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이 중국어 음높이 유형과 비슷하게 발화하는 간섭이 일어남을 보여 주었다. 또 상성-상성 성조 조합도 겹으로 보면 앞에 기술한 두 가지 조합과 똑 같이 한국어 한자어 음높이 유형에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 이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중국어의 발음 규칙에 따라 상성이 아니고 양평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국어 상성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한자어의 음높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양상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중국어 단어의 성조를 살펴보고 이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하는 대응되는 한국어 한자어의 성조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음높이 유형 학습에서의 중국어 성조의 영향과 양상을 알아 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실험 데이터의 양이 적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중국어의 성조(상성 외의 음평, 양평 그리고 거성)가 한국어의 음높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중국어의 성조가 한국어 발음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성조의 확장뿐만 아니라 단어 선택 범위도 확장하여 동형동의어 외에 완전 이형동의어와 부분 이형동의어 나아가 고유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단어 발음에서의 중국어 성조가 음높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음성학적인 자료와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발음 습득에 있어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검토한 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Choi, E. H. (2009). "A study on Chinese learners' Korean pronunciation analysis and teaching pronunciation - Focusing on Sina-Korean words", Maste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최은하 (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분석 및 발음 교육 연구--한자어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hoi, E. H. (2010). "A study on Chinese learners' Korean pronunciation analysis and teaching pronunciation - Focusing on stops", *Korean Literature*, Vol. 48, 355-383
 (최은하 (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와 중국어 유사발음 비교 분석 및 발음지도 연구", *국어문학*, 48권, 355-383.)

Huang, B. R., & Liao X. D. (2007). *Modern Chinese*, Higher Education Press
 (黃伯榮, 廖序東 (2007).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Hwang, H. S. (2004). "The Intonation error of Chinese Korean-learners", *Humanities Literature Studies*, Vol. 31, No. 2, 161-182.
 (황현숙 (200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태 연구", *수행인문학* 31-2. 161-182.)
 Hwang, H. S. (2006). "An analysing and a strategy on the prosody realization of Chinese - with a repeated interrogative sentence -", *New Korean Education*, Vol. 73, 285-317.
 (황현숙 (2006).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3, 285-317.)
 Jang, H. S. (2002). "The study on pronunciation error made by Chinese native speaker in learning Korean", *Korean Linguistics*, Vol. 15, 211-228.
 (장향실 (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권, 211-228.)
 Jeong, M. S. (2003). "The Intonation of Japanese and Chinese Korean-learner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4, No. 1, 233-247.
 (정명숙 (2003).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음높이 유형",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233-247.)
 Ju, Y. G. (2004). *Korean-Chinese Comparison Dictionary*, Dongyang Press.
 (주양곤 (2004). 한-중 한자어 비교사전, 동양문고.)
 Lee, O. J. (2008). "A study of the pitch patterns of questions in Mandarin that are produced by Korean speakers, in an effort to understand prosodic aspects of interlanguage phenomena",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Vol.28, 403-442.
 (이옥주 (2008). "한국어 화자의 중국어 억양 발화 연구와 방법론적 고찰: 의문 억양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28집, 403-442.)
 Lee, J. U. & Jo, G. C. (2005). *1000 words often used in Korean that we don't know their meaning*, Yedam.
 (이재운, 조규천 (2005).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 한자어 1000가지, 예담)
 Masuda Hiroi. (2006). *Ancient countries 'Chinese character sounds' contrast dictionary*, Tokyo: Keibunsha.
 (増田 弘, 大野敏明(2006).古今各國[漢字音]対照辞典, 株式会社東京慧文社.)
 Nam, M. A., & Kim, Y. J. (2008).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character words with different form-same defini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No. 127, 233-279.

- (남명애, 김영주 (2008). “한-중 이형동의 한자 어휘 대조 연구”, 국어교육 127, 233-279.)
- Park, H. Y. (1999). “An acoustic-phonetic contrastive study of syllable-final nasals in Korean and Japanes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박혜영 (1999). 한·일 양언어의 音節末 鼻子音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대조 연구: 지속시간의 보상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W. (2001). “Experimental phonetic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Chinese female speakers' Korean pronuncia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박진원 (2001). 한·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K. Y. (2009). “The study of teaching Korean final endings' intonation - a focus on intonation difference of modal meaning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Vol. 34, 373-398.
- (박기영 (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결어미의 억양 교육 방안 - 특히 양태 의미에 따른 억양 차이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34권, 373-398.)
- Wang H., & Li, Y. L. (2003) “Chinese tone and intonation differences and the influence on translation”, *College of Foreign Language, Central South University*, 57-60
- (王皓, 李延林(2003). “汉语声调与英语语调的差异及其对翻译的影响”, *中南大学外国语学院报*, 57-60頁.)
- Yu, J. S. (2006). “A study on the Korean accent pattern of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pitch”,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 (유재선 (2006).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실현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Zhao, W. Y. (2006). “A study of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learners”,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Vol. 21, 365-387.
- (조문우 (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21집, 365-387.)

관심 분야: 음성학, 발음교육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수료

● **김영주 (Kim, Youngjoo)**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리 1
Tel: 031-201-2284 Fax: 031-204-8112
Email: yjkims@khu.ac.kr
관심 분야: 제2언어습득, 인지심리학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 **유사양 (Liu, Si Yang) 공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어문화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리 1
Tel: 031-201-2238 Fax: 031-204-8112
Email: yosayoung@hanmail.net